

지난해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공모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주현(건축학 2017) 씨를 만나보았다.



4년만인 대면 학위수여식을 맞이해 졸업준비위원회를 만나보았다.

대학주보

'전환시대, 새 희망을 찾아서', 4년 만의 대면 학위수여식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지난 15일 2022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이 양 캠퍼스(양캠프)에서 대면으로 열렸다. 대면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2018년 후기 학위수여식 이후 4년 만이다. 서울 캠퍼스(서울캠)는 오전 10시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국제 캠퍼스(국제캠)는 오후 2시 선승관에서 개최됐다.

양캠프 학위수여식은 ▲개회식선언 ▲국민의례 ▲졸업식사 ▲학위수여 ▲총장시상 ▲축하공연 ▲교가제창 ▲폐회식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학위수여식에는 한균태 총장을 비롯해 학무부총장, 의무부총장, 각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장은 '위기의 시대와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로 축사를 진행했다. 한 총장은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여러분이 더욱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의 학위는 자신이 이뤄낸 빛나는 성취"라고 전했다. 이어 "그 안에는 일일이 거론하기 쉽지 않은 지원과 배려, 관심과 응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경희를 졸업하는 여러분이 사회적·지구적 연대의 전위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텔관광대학 앞 비석에 쓰인 '생각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를 언급한 한 총장은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는 지속 가능한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며 "생각하는 자가 사회적 연대를 이뤄 낼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 즉 평화와 공영의 미래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21세기 문명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여러분 한분 한분이 '또 하나의 경희대학교'로, 다시 말해 문화인·세계인·창조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란다"며 졸업식사를 맺었다.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학위 과정 4,262명, 특별과정 134명, 석사학위 과정 1,537명, 박사학위 과정 203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사진=서세종 기자)

졸업식사 이후 2022학년도 전기 학사, 석사, 박사, 특별과정 대표자들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학위수여는 학사학위 과정 4,262명 특별과정 134명 석사학위 과정 1,537명 박사학위 과정 203명이 받았다.

서울캠에서 학사 2,405명, 석사 388명, 박사 128명이 학위를 받았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 단과대학은 정경대학으로 441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이어 호텔관광대학 335명, 경영대학 324명, 이과대학 235명, 문과대학 178명, 간호과학대학 166명, 생활과학대학 126명, 한의과대학 106명, 의과대학 97명 음악대학 90명 등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캠에서는 학사 1,857명, 석사 205명, 박사 60명이 학위를 받았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 단과대학은 공과대학으로 516명의 학생

이 졸업했다. 이어 예술디자인대학 361명, 체육대학 225명, 외국어대학 192명, 전자정보대학 170명, 응용과학대학 121명 등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양캠프 학사 학위 수여자 중 최고학번은 04학번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서울캠은 학부 총장상과 대학원 우수학위논문상을, 국제캠은 학부 총장상을 시상했다. 학부 총장상은 2022학년도 졸업생 중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경희 정신을 빛낸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단과대학별로 1명씩 서울캠 15명, 국제캠 9명으로 양캠프 총 24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대학원 우수학위논문상은 2022학년도 졸업생중 계열별 우수학위논문으로 선발된 원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4개의 최우수 학위 논문과 18개의 우수학위 논문이 선발됐다.

이후 표창패 시상이 이어졌다. 표

창패는 경희 정신으로 어려움에도 전하고 극복한 영예로운 졸업생에게 주어진다. 시상에 앞서 영상을 통해 경희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강조하며 도전과 극복을 실천한 경희인 4명이 소개됐다.

국제캠에서는 시상 이후 내외국인 졸업생 대표 답사가 이뤄졌다. 내국인 졸업생 대표 박예진(도예학 2019)씨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앞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도전에 대한 진정한 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각자 여러 분야로, 우리들이 경희에서 쌓아온 귀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더 넓은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며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불어 경희에서 이어진 만남의 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외국인 졸업생 대표인 Wang Hsichih(한국어학 2019) 씨 역시 "코로나19 학번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오늘 졸업식의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함께 졸업하는 학우분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과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표했다. 또한 "대학 생활 이전에는 우물 안 개구리이던 사람이었지만, 대학 생활을 통해 큰 세상을 알게 됐다"며 "졸업 후, 사회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용기를 갖고 끝까지 도전하며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학위수여식은 서울캠에서 음악대학 학생들이, 국제캠에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마무리됐다.